

투데이 칼럼

호감의 스피치기법

우리가 태어나서 운명을 다 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은 말이다. 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대화이다. 대화함에 있어 성공의 열쇠는 '호감'인데 호감의 70%는 표정인데 잘 웃고 미소 짓고 귀 기울이는 것이며 나머지는 외모와 옷차림 등이다.

호감의 스피치 기법을 알아보자 첫째, 3קות 실천하자. '종긏', '뽕긏', '지긏'이다. 대화할 때 항상 귀 기울이며, 항상 웃고, 항상 공감하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쉽게 호감하고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YB(yes-but) 화법이다. 이 'yes-but 화법'은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대화법, 맛있는 대화법으로 너무 아는 척하지 않기,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체적으로 보고 말하기, 자기 권위만 세우지 말기, 상대의 욕구 파악하고 말하기, 즉 5기를 말하고 싶다. 대부분의 대화법에서도 남자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남자로 봐주고 인정해 주는 여자, 관대하다고 해주는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결론적인 대화를

좋아하고 자기 말에 '맞소 부인'이 되어 주기를 좋아한다. 반면, 여자는 감성적이고 감동과 사랑해주길 바라며 대화도 과정 중심이며 자기의 심정을 이해하는 말을 좋아한다.

특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자들은 실감이 나는 것이다. 수시로 '사랑해', '좋아해', '수고했어'의 말을 해보자. 여자의 얼굴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자가 하는 말에 잘 경청하고 맞장구를 잘 치는 남자를 좋아한다.

또한, 여자는 '3M(무드, 매너, 머니)'에 약하니 '3M'을 잘 이용하면 여자는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쉽게 좋아진다. 여자에게는 사소한 것에 속상해하므로 하찮은 일, 말을 조심하고 잔정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

그리고 남, 여 모두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은 칭찬이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칭찬하는 습관을 연습하여 활용해 보자.

성공적인 삶은 인간관계에 달려 있는데 그 조건은

첫째, 원만하면 상대에 동의하라.

둘째, 수용해 주어야. 셋째, 감사하면서 살아라.

넷째,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마라.

다섯째, 상호건설적이지 못한 비판을 하지 마라.

여섯째, '격려와 위로하리'를 실천하라.

자녀와 대화, 부부 대화, 사교 대화에서도 '칭찬'은 특효약의 역할을 반드시 할 수 있다.

셋째, 대화할 때에서 바디랭귀지(몸 말)를 잘 활용하면 대화는 물론 모든 스피치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일찍이 석가모니는 '무재칠시(無財七施)'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였다.

아무리 가난하고 배움이 없다고 해도 남에게 베푸는 것이 7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회안시 젊잖고 환한 얼굴로 대하기

'언시'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등으로 말하기

'심시' 마음을 열고 진실하고 정답게 대하기

'인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바라보기, '히시' '행시' 7가지

를 말한다.

넷째, 욕구 파악하여 니드(Need) 화법이다.

예민한 주제보다, 자기 위주보다 상대가 원하는 대화, 듣고 싶은 말 하여 상대와 교감하라는 것이다.

대화 시에는 상대에 직, 간접적으로 상처 주는 일, 귀에 거슬린 말투를 삼가야 한다.

대화는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매일 매일 대화한다고 상대를 등한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실패하는 자가 된다.

스피치 노하우 잘 활용하여 호감 받고 존경받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로 웃으면서 밝은 마음으로 성공, 행복의 나날을 보내면서 살아가자.

김 양 욱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 교회 총격· 방화 현장 불 끄는 소방관들



28일(현지 시간) 미 미시간주 그랜드블링의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모로몬교)에서 총격과 방화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던 총격범은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당시 교회에서는 수백 명이 예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부알로이로 좌초된 베트남 어선



29일(현지 시간) 제20호 태풍 부알로이가 휩쓸고 간 베트남 쑹짜 해안에 어선 한 척이 좌초돼 있다.

사설

신석정 시인 51주기

최근 신석정 시인의 51주기를 맞았다. 그의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목가(牧歌)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시집 “촛불”과 시 “들길에 서서”와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깝다.”가 있다.

그는 1907년 8월 15일 전라북도 부안군 동도면(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중앙불교전문강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73년 ‘전라북도 문학상’ 심사 도중에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1974년 전주시 남노송동 자택에서 고혈압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였다.

목가적 시인으로 알려졌지만, 일제강점기에도 창씨개명까지 거부하고 검열과 회유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시를 저술했다. 이후 4.19와 5.16 때도 독재에 저항하면서

강한 생애를 살았다. 널리 알려진 시가 목가적 시가 대부분인 탓에 저항시인의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저항시는 물론 다양한 장르의 시를 쓴 시인으로 목가적 시인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깝다’가 유명하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싹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생략)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인제야 저녁안개가 자욱이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신석정 시인이 신경민 전 국회의원의 “작은 할아버지”로 소개될 때가 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신경민 의원이 직접 “신석정 시인은 저의 유년과 청소년 시절 꽃이 가득한 윗집의 조부 형렬 할아버지였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돌봄 강화를 위한 협약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와 군장대학교는 9월 17일 전주 가회당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상생 통합 모델 구축’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섰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인 돌봄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경력을 쌓고, 어르신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 △어르신 간병 및 요양 보호 업무 함양 △

관련 학과 학생들의 통합 돌봄 역량 및 현장 적응력 증진 △관련 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고령화 사회 대응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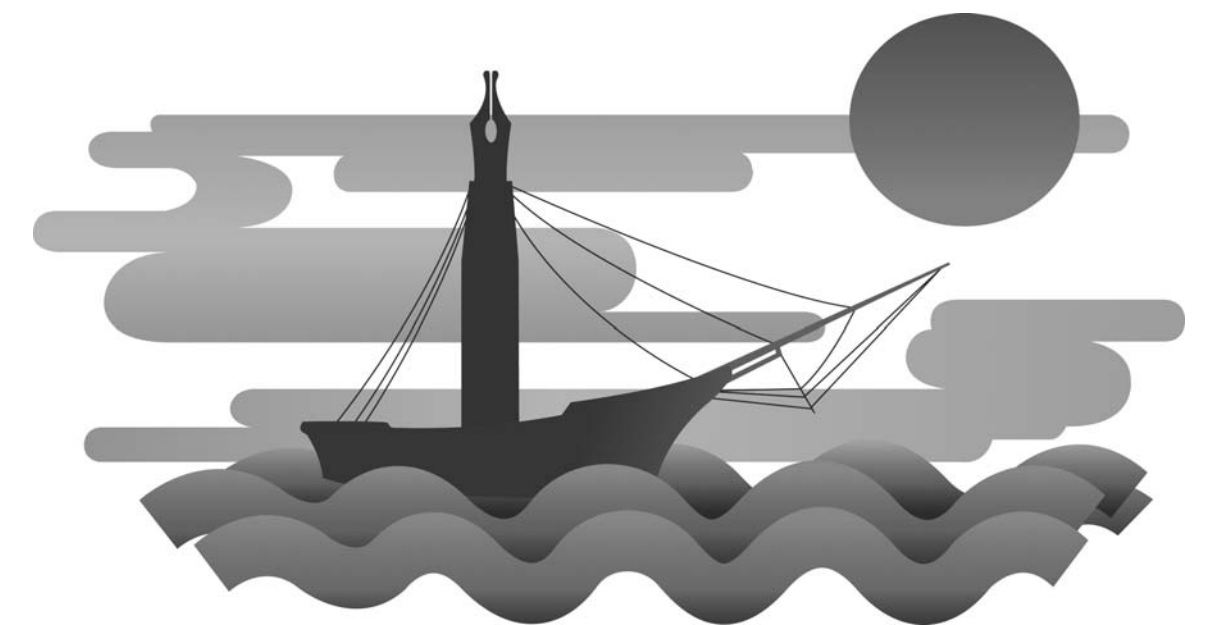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은 “대학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전반을 함께 돌보겠다고 나선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현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지역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와 역량을 모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군장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어르신의 존엄한 삶과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잇는 소중한 다리가 될 것”이라며 “대학이 가진 자원을 지역 사회와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육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